

‘코로나 역대 최다’... 전주시 방역수칙 점검 강화

지난 7일 전주시 코로나 확진자 41명 코로나19 사태 후 역대 최다치 갱신

양정선 기자 werwuker@sjbnews.com

화요일인 7일 전주시역 신규 확진자는 41명으로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전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 역대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앞선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전주시역 일평균 확진자는 12.5명이었다. 그런데 지난 1~7일, 단 일주일 사이 일평균 확진자는 2배 이상 증가한 26.7명을 기록했다. 8일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는 23명이 나왔다.

보건당국은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n차감염은 물론, 접종 후 기간

경과로 인한 돌파감염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주를 넘어 전북,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주시는 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방역 긴장감을 높이고, 체계적인 방역대력을 추진하자는 것이 회의의 핵심이다.

시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 등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PC방과 코인노래방,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홍보와 시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검체 라인도 확대된다. 재택 치료자에 대한 신속 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TF팀은 1개 팀·4명에서 3개 팀·21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돌파감염 확진자가 많고 발생 숫자가 1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코로

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어지자”는 말에 폭행·협박한 50대, 징역 10년

미제사건 범행도 밝혀져

내연녀의 이별요구에 “남편에게 알려겠다”며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을 내렸다.

전주시법 12형사부는 8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내연녀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협박해 나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만남을 지속하다 지난 2019년 3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범행이 시작됐다. 그는 B씨에게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려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지속하던 B씨는 지난 5월 연락을 피

오늘의 판결

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재차 “만나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뒤, 사건 당일 B씨를 전주의 한 모텔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그를 지난 2009년 6월 전주 한 여관방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DNA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에 대한 폭행이 매우 가혹하고 그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또 다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 역시 매우 가혹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누번기간 중에도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전주시자봉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우수’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힘써온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8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등은 전국 17개 시도,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센터는 130일동안 예방접종센터에



자원봉사자 3,145명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정선 기자

전북경찰청, 수사관 업무 과중 해소 나서

수사부서 담당 사건 급증, 수사관 인력 증원은 저조... 업무 과중

전북경찰청이 도내 각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일부를 이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수사부서 담당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수사관 인력 증원은 저조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데 따른 것이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경제범죄(사기·횡령·배임 등)는 2016년 9,036건에서 지난해 1만 2,459건으로 37.8%(3,423건) 증가했다. 사건 1건당 처리 기간도 45.1일에서 올해 7월 기준 63.9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올해 초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팀 정원을 27.1%(28명) 증원하고 4개 팀을 신설했지만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직접 수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경찰관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지원을 위해 ‘보유사건 경감 TF팀’을 구성하고 수사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도내 각 경찰서가 보유 중인 사건을 전수 조사한 뒤 수사관 수사경력과 처리 기간,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99건을 이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 130건 △전주완산서 119건 △정읍서 73건 △전주덕진서 39건 △완주서 35건 △부안서 2건 △익산서 1건 등이다.

이관된 사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안보수사대 등이 맡는다.

직접 수사 확대로 일선 경찰서 경제팀의 1인당 평균 보유 사건은 33.8건에서 30.2건으로 3.6건 감소하게 됐다. 또 지능팀은 3.1건, 사이버팀은 2.9건씩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실질적인 책임수사를 위해 수사 멘토링 지원과 인사시 경력자 배치, 인센티브 마련 등 일선 경찰서 자체 역량 강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수사관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고충이 있어 일부 사건을 전북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로 옮겼다”면서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내실 있는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사관 1인당 평균 보유사건을 20건대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전북대, 이채로운 동남아 언어캠프

전북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 동계 동남아언어캠프’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산외대에서 열린다.

이번 캠프는 2주간 50시간 집체교육방식으로 운영된다.

동남아언어와 아랍어 6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언어강화 프로그램이다.

전북대와 부산외대 간에 체결된 학점교류협정에 따라 전북대 재학생의 경우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강생 전원에게 1인 1실 기숙사 및 1인 2식의 식사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공현철 기자

전주대, 전주 구도심 도시재생 디자인展

전주대학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주 구도심 도시재생 디자인展’ 전시회를 치러줄 갤러리에서 진행한다. 8일 밝혔다.

해당 전시회는 건축학과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전주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46개 대지의 이야기를 민감하게 들어, 이를 반영한 노력의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준영 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10번째 맞이하는 전주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전을 통해 도시속에서의 건축을 감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군산대-베트남호치민공과대학 심포지엄

군산대학교는 8일, 베트남 호치민공과대학교와 양국 문화교류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라인을 통한 공동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2016년 군산대학교가 베트남 거점대학인 호치민공과대학교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학생 교류를 위한 협약’, 실질적인 세부 교류 사항이 포함되도록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골자로는 양교 간 공동연구, 교육·문화 프로그램 교류, △교수·연구원 교류 △인턴십·학점교류를 포함한 학생교류 △학술정보 교환 등으로 추가로 매년 양교가 번갈아가며 심포지엄을 갖기로 했다. /군산=백종규 기자

친절한 부동산동산중개

광고문의 : 063)230-5700
010-3654-5030

공장전문 하나로부동산

대표 박종탁

익산시 성당면 동동리 공장 매매 및 임대

- 건물 : 2,684㎡ (용도 : 공장 / 창고사용가능)
- 토지 : 9,414㎡
- ※ 매매금액: 12억
- ※ 임대가 보증금 월세 1년분 월세 평당 1만원(약간조정)

익산시 합월읍 남당리 공장 임대

- 건물 : 150평(용도 : 공장 / 창고사용가능)
- 보증금 1500만, 월세 평당 1만원 8월 입주가능

010-3651-6304

LBA 재테크 공인중개사

금암동 중앙하이츠A맞은편 버스정류장 옆(구.금암사)

매물접수

(전북지역)

상가, 건물, 토지, 임야
원룸, 아파트, 주택 등

— 투자상담 —

매수자 임차인] 대기중

063)232-7114 / 010-3652-7114

일회용품, 하루에 몇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심코 쓰다 버린 일회용품들이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